

서울당서초교 양재운 (2-1)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 날씨 : 맑음

제목 : 고구려 대장간 마을

친구 정빈이와 태훈이 오빠 친구들과
같이 갔다. 역사 탐험 수업이데 제일기
억에 남는 것은 화살과 칼이었다.
왜냐하면 전쟁이 날때 화살과
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장간에
서 무기를 만들었다. 고구려와 백제가
싸웠는데 고구려가 속임수를 써서 백제
병사들이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 동안
고구려가 백제땅에 쫓다. 그래서 우
리 나라땅이 갈라진것 같다. 우리나라는
조그만데 싸우니까 참이상하다
고 생각한다. 내가 군사들이었다면 그
냥 우리나라를 갈라지 않게 할 것이다.
예전에는 전쟁이 날때 차가 없어서
말을 타고 다녔다. 내가 아는 역사
사람들은 이순신, 광개토태왕, 동명왕, 은
조왕..... 감 많다.
지금이라도 사과를 하고 그냥 나눠쓰
고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.